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한마음에 넣는다면 그게 부처예요

남들은 불사를 해서 신도분들을 춥지 않게 하는데,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운데도 저 바깥에 서 있어야 하고 애들은 울고 그럴 때 보면 아주 제가 부족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이 추운데 저기 서 있는 걸 보니까요. 허허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 한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반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볼 때 참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체 만물만생을 볼 때 동물이든 또 고등 동물인 사람이든 누구나가 차원은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언정 모두가 특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비하게,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말은 뒷발을 주고 소는 앞 뿔을 주고 이러듯이 말입니다. 생긴 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모든 일체 만법을 객관으로 들여서 주관에서 소화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졌죠. 이 모두가 고등 동물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99%는 부처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그 기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고 모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런 걸 그렇게 능히 소화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으련만,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인간도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로보트를 작동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그 로보트는 운영을 못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라면, 몸은 바로 로보트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전체를 다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그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그래야 나도 배우죠. 허허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믿는 것을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믿습니까?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구가 가엾은 나를 도와줄까요? 누구가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까요? 누구가 내 가난을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누구가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 갈 때에 어루만져 줄까요? 이 모두가 바로 머리, 두뇌가 컴퓨터라면 내 몸을 작용시키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림 · 최주현

을 다 송두리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두뇌 컴퓨터를, 즉 오신통(五神通)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컴퓨터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의 문제를 통틀어서 원자라고 한다면 그 원자 속에서 다 소화시켜서 배출시키는 그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자기 두뇌 컴퓨터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누구를,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믿느냐. 허허. "너 먼저 찾아라. 본래 있는 것이니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발견하는 것이니라." 이 모두 여러분이 믿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가상한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그거 찾을 사이가 어딨어? 또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주인공 이름 부르고 있을 사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겠지만, 본래 그렇게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 한데 합쳐져서 그거를 컴퓨터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모든 일체를 내부에서 받아들여서, 외부의 모든 것을 일체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입력된 것만 해결해서 로보트가 움죽거리겠지만, 우리는 자동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배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첨단을 요한다.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나는 못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래.' 이러겠지만,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왜? 이 두뇌의 기능은 천 년을 걸어가든 하루를 걸어가든 일 초를 걸어가든 똑같다는 얘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길어서 못한다, 이거는 짧아서 잘 된다, 이거는 커서 들 수가 없다' 는 둥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없단 얘깁니다. 이 체가 없는 내 마음은 바로 그림자와 같고 빛과 같아서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지에 끝 간 데 없이 불기둥이 있다면, 그 불기둥을 끼고 수레가 중간에서 돌아간다면, 그 기능이 다 거기에 소유돼서 배출이 되고 또 들고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에서 이건 멈추고 구르고 그러는 거지, 그 수레는 여전히 누가 이러든 저러든 말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냥 놓고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수레는, 수레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체가 없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이 천차만별로 할 수 있건만, 뭐가 그렇게 걸려서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다, 자꾸.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차근차근 쌓여 있는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번뇌 망상이, 망상이라고 그거를 일컬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컴퓨터에 쌓이고 쌓여서 자꾸 나오니 말입니다. 차근차근 차례차례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훌렁 마음이 뛰어야 될 텐데 뛰질 못해요, 마음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건만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니 그거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남한테 보증을 서고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 받은 거를 쥐고서 불불불불 떨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네들 거지 당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요. 마음으로 다 버릴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는 마음이 있는데, 어차피 버려진 거라면 그냥 버렸으면 마음이나 편안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몸을 살릴 수도 없거니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없어진 거, 아니 본래부터 자기가 그렇게 없애 놓고 뭘 그렇게 애원합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면 뒤끝이 맑아야죠. 어차피 자기가 해 놓은 거니까, 자기가 버린 거니깐 자기가 버린 걸로 그냥 놔야죠. 어차피 버려진 거를 그걸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건 벌써 이 컴퓨터에 이 붙잡고 있는 입력이 들어가선 이 몸뚱이의 모든 의식들을 침체시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인간 중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인간 기능을 모두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잘해서 입력이 된다면 앞서 잘못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생각 한 번을 잘하면 대뇌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소뇌와 대뇌와 이렇게 서로 맞먹으면서 중뇌에서 그걸 책정해 가지고 명령과 더불어 사대(四大)로다가 통신을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만 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이 다 해 줄 때를 바랍니까? 남의 손을 빌릴 때는 빌려야 하지만, 남의 손은 20%나 30%밖에는 빌릴 수가 없으니 내가 하는 게 70%, 80%가 돼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좀 웃기고 즐거운 말은 안 하고 만날 저런 말만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게 그거니깐 할 수 없습니다. 시급하니까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얼마나 지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명령을 조달해서 받고 움죽거리는 로보트라면, 바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

☞ A18면으로 계속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